

# 그 많은 계산원은 어디로 가라고

광주·전남 이마트 모든 점포  
무인 결제 시스템 도입 완료  
5년 간 6개 점포 152명 떠나  
노조, 구조조정 중단 투쟁 의지



이마트 광산점이 26일부터 '셀프 계산대'를 들이면서 광주·전남에 있는 모든 이마트 점포 7곳에 대한 무인 결제 도입을 완료했다.

무인 결제 확대와 점포 폐점, 온라인 사업 강화 등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이마트 6곳에서 지난 5년 동안 150여 명이 일터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 노동조합은 가속화되는 대형마트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한 단체 행동에 들어갔다.

2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광주·전남 이마트 6개 점포(광주점 제외) 직영인력은 775명으로, 5년 전인 2015년 12월(927명)에 비해 152명(-16.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원 감소율이 가장 큰 점포는 오는 28일 영업을 종료하는 동광점이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5년 62명이 일했지만 올해 1월 기준 42명으로 줄어, 감소율이 32.3%(-20명)에 달했다.

여수점 감소율이 28.9%(190명→135명)로 뒤를 이었고, 광산점 16.9%(160명→133명), 목포점 15.1%(212명→180명), 봉선점 6.5%(154명→144명), 순천점 5.4%(149명→141명)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새 6개 점포에서 감축된 인원은 152명으로, 점포당 25명 가량 인력이 줄어든 셈이다.

노동조합 측이 조사한 인원은 계산원을 포함한 인원으로, 이마트는 지난 2018년 본격적으로 고객

## ■ 광주·전남 이마트 인원감축 추이

※광주점은 미확인·단위:명·%

점포명	2015년 12월	2021년 1월	감축 인원	감소율
동광주	62	42	-20	-32.3
여수	190	135	-55	-28.9
광산	160	133	-27	-16.9
목포	212	180	-32	-15.1
봉선	154	144	-10	-6.5
순천	149	141	-8	-5.4
합계·평균	927	775	-152	-16.4

(자료: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마트산업노동조합)

이 직접 물건 값을 계산하고 결제하는 '셀프 계산대'를 도입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같은 해 7월 동광주점을 시작으로, 봉선·상무(2019년 폐점)·광주점과 목포·여수·순천점 등으로 셀프 계산대를 들여왔다.

26일에는 광산점에 셀프 계산대가 설치되면서 광주·전남 모든 점포에 대한 무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완료된다.

이마트 광산점은 1층 계산대에 6대 가량을 설치하고, 2층 계산대를 기존 밤 11까지에서 1시간 단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 3사는 셀프 계산대를 도입할 때마다 고객 사생활 보호와 편의를 위한다는 도입 취지를 고수하면서 "계산 무인화로 인한 유류 인력은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하며 고용 감축은 없다"는 설명을 해왔다.

하지만 노조 측은 "마트 노동자들을 유통기한 지난 상품으로 취급하는 대형마트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투쟁 의지를 밝혔다.

마트산업노조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이마트 창동점의 첫 무인화 도입 이후 전국에는 현재 셀프 계산대 900여 대가 설치된 상태"라며 "5년 동안 이마트에서 감축된 인원은 전국적으로 6072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홈플러스는 지난해 안산점 등 4개 점을 매각한 데 이어 올해도 대구스타디움점과 부산 가야점 폐점 매각을 단행한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해에만 12개 점포를 폐점하고 올해 희망퇴직을 유도하며 구조조정을 벌인 결과 최근 1000여 명의 직원이 일터를 떠났다"며 "사후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지역분부는 지난 20일 홈플러스 순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대형마트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버팀목자금 신청 못한 소상공인 오늘부터 확인지급 신청 받는다

중기부 내달 1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아 적극적인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인 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이번 지급 대상이다.

여기에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 제

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체육시설법령 개정으로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3월1일 이후 사업자 재등록을 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으나 신청 유형(지급 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이번 신청 대상이다.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없는 곳도 매출 감소를 판단 받은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 지급 신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농어촌공사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율 2년 연속 증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율이 2년 연속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3일 비대면 금융장터를 열고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밝혔다.

광주·전남 사회적 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장터를 열고 있다. 장터에는 광주 가치기움 사회적 협동조합과 전남상사 사회적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이달 현재까지 4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약 2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공사는 분사 임직원을 대상을 주문을 받아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 외에 택배 배송방식을 추가해 금융장터를 격렬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 지자체와 함께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플랫폼(모이세) 구축을 지원했다.

공공구매 플랫폼, 모이세를 통해 전국 부서 계약담당자들이 등록된 업체 11곳에서 12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공사의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비율은 2018년 3.74%, 2019년 4.36%, 2020년 5.14%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는 정부 권장 구매율 3.1%를 넘는 수치다.

김인식 사장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매와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 로또복권

(제96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18	24	30	32	45	1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401,133,213	10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71,462,298	56
3	5개 숫자일치					1,557,762	2,569
4	4개 숫자일치					50,000	129,546
5	3개 숫자일치					5,000	2,180,006

# 청년스타트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중진공, 내달 13~14일 화상 면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6일 6개 테마로 이뤄진 'KOSME 내일애(愛)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의 두 번째 행사로 '청년스타트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25일 밝혔다.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입사 지원을 받으며, 이후 다음달 13-14일 화상 면접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등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150여 개가 참여해 3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앞서 중진공은 병역지정 업체(6월), 지역특화·유망산업(8월), 중년·신년(10월), 특성화고(11월) 일자리 순으로 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박람회 기간 일반적인 채용절차와 함께 인공지능(AI) 모의면접, 1대 1 취업컨설팅, 인성·직무능력 검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해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도울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창구디지털서비스로 디지털 금융 앞장

광주은행 송종욱 은행장은 지난 22일 창구디지털서비스(BDT)를 적극 활용한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자명함시스템이다. <광주은행 제공>

# 생태수도 순천, 지방교육자치를 꿈꾸다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방교육자치도시 실현  
위기의 전환, 모두앳학교와 순천특화 과정 운영  
교육으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앴다, 교육이 분모가 되는 순천!